

가

: 「북조선내부영상·문서자료집」 분석을 중심으로*

강동완(동아대학교)**·김현정(동아대학교)***

폐쇄되고 억압된 북한사회에서 위로부터의 사상통제와 강압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도는 체제결속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4년차에 과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갖고 특정 언론사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을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녹취한 자료로써 현재 북한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 역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이 갖는 정권의 지지도와 충성도는 북한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녹취된 원자료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 , , ,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김정은 정권 5년차를 지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7차 대회는 김정은 정권을 당을 통해 공식화 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이나 시기와 비교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에 권력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5년 동안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한 행, 재정적 제도들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식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부평가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폐쇄되고 억압된 북한사회에서 위로부터의 사상통제와 강압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도는 체제결속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 상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권의 지지도와 충성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 및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거나 무작위 방식의 전화설문을 시행하여 여론을 수렴한다. 하지만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중접경지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북한으로부터 내부정보를 거래하는 브로커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부 문건이나 소식이 유출되는 사례가 찾아지고 있다. 국내외 선교단체들은 북한 내부 정보원이라는 소식망을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파악하는가 하면, 북한 내부 문건이나 영상 자료 등을 유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4년차에 과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갖고 특정 언론사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을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녹취한 자료로써 현재 북한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 역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이 갖는 정권의 지지도와 충성도는 북한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

민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녹취된 원자료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아울러 주변 인물에 대한 속칭으로 이어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연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북한실태 조사 부분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변화여부를 살펴본다.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 자체에 대한 평가로 김정은 권력승계에 대한 부분과 경제상황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장성택 속칭 관련 보도 및 주민반응과 김정은 체제 하 사회단속 및 검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연구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2011년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7일 오전 8시 30분 경 김정일의 사망이 보도된 이후, 김정은은 국가장의위원회를 관장하며 권력승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2월 31일 보도에 의해, 3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일 총비서의 2011년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 11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라 공표되었으며, 이에 따른 당규약도 개정되어, 김정일을 ‘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임을 새로이 명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김정은의 정권 승계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정권 세습 과정과 유사한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권력 세습과 정권 교체에 따른 북한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주로 권력 체계와 당과 군의 관계 구도, 경제개혁 등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특히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즉 김정일 정권 하 군사를 앞세운 ‘선군정치(군사국가)’에서 당우위의 국가체계(당-국가 체제)로의 복원을 모색하는 북한의 의도가 ‘당의 향도적 역할

(leading role)'과 '김일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군부를 통제하여 후계구축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주어졌다.¹⁾ 세부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와 김정일 시대 주요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의 양자간 관계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공동통치체제의 유신통치 필요성, 선군정치 지속을 통한 군부의 직할통치 필요성, 통치기구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충성경쟁 유도 등의 판단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계속 존속할 것이며, 위기상황 및 대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증원 및 역할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다대할 것이란 전망이 주어졌다.²⁾

이에 더해 2010년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후³⁾ 북한정권이 시도해 온 북중 경협 등의 경제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남북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대중의존도, 경제특구 활성화 등이 교차하여 전망되기도 하였으며,⁴⁾ 2010년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 개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 특히 북한은 북한 경제개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 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⁵⁾ 20대에 국가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 정권에 대해 외부의 시각은 개혁·개방 및 이에 따른 전환경제체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새 정권은 측근 숙청 및 단속과 감시, 처벌이 이어지는 공포정치로 귀환되고 있다.

2013년 12월 3일 한국의 연합뉴스에 의해 장성택의 실각이 처음 보도된 이후⁶⁾

-
- 1)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2011), p. 175.
 - 2)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2013), p. 69.
 - 3) 김정일이 노동당 창건 65돌을 맞아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였다. 동 명령에 의하면,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 칭호를, 류경(국가안전보위부 부장)에게 상장의 군사 칭호를 로홍세, 리두성 등 6명에게 중장의 군사 칭호를, 조경준, 장도영, 문종철 등 27명에게 소장의 군사 칭호를 올리며, 국방위원회 결정에 의해 리영호에게 조선인민군 차수 칭호가 수여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7일).
 - 4)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2012), p. 25.
 - 5)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집 제1호(2013), p. 197.
 - 6) 연합뉴스,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은...전문자 장관, 국정원 '北 장성택 살피한 듯'”,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03/0511000000AKR20131203189900014.HTML>

그가 처형된 사실이 발표되었으며, 북한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알려진 바대로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로 김정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권력 서열 최고위에 오른 인물이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당시, 주석단 명단⁷⁾에 장성택의 이름이 게재된 바 있다.⁸⁾ 이러한 인물에 대한 제거는 김정은 정권 체제 하 사회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장성택과 관련되어 있는 당, 군 전반의 인물들과 그의 가족들이 연좌되어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감시, 감독 및 검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3년 12월 14일 《조선중앙통신》에서 ‘공화국헌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 사형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재판 내용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CNN방송은 5월 11일 서울발 기사에서 고위 탈북자인 박모 씨(가명)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이 고모인 김정희를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였으며,⁹⁾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설이 보도되고 있다. 북한군 간부들이 군 내부 정치 강연에서 "현영철이 수령(김정은)의 영도를 거부하고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5월 15일 알려지며¹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김정은 정권 교체 후 북한사회 변화에 관한 분석은 북한공식언론 및 탈북자 증언, 북한 고위직 제거 등의 타전에 따른 지위의 구조적 변화에 의존하여 왔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 등 거시적 구조의 변화 이외에 김정은 정권 체제 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현 정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실제로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 정권 시기를 경험하고,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정치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란 시공간 한계가 있다.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제한은 북한관련

7) 주석단 명단이란 열병식 등에서 지도자와 맨 앞 줄에 나란히 등장하는 실질적 권력 서열 최상위 인물들을 지칭한다.

8)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5일

9) 연합뉴스, “CNN ‘북한 김정은, 고모 김정희 독살시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2/0200000000AKR20150512025600009.HTML>

10) 조선일보, “현영철, 首領 영도 거부해 처형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177.html

연구의 한계로 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관련 연구방법을 확대하고 최근 자료에 기반한 북한 사회 분석을 위해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 및 북한 내부협력자와의 전화녹취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을 직접 면접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 조력자를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입수한 북한 주민과의 녹취자료 및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제 내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북한 주민의 정권충성도와 결속력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의 사상학습교양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2. 연구방법: 북한 주민 면접 녹취파일 및 영상자료 해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 내부협력자와의 전화녹취 파일 및 내부영상은 북한 문제 전문 출판사로 알려진 아시아프레스(Asia press) 사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의 출판물에 의해 입수되었다. 해당 출판사는 2014년 12월 출간된 『북조선내부 영상·문서자료집: 김정은의 새 ‘10대 원칙’ 책정·보급과 장성택 숙청(北朝鮮內部映像·文書資料集: 金正恩의新「十大原則」策定·普及と張成沢肅清)』 제목 하의 저서 및 동영상 자료를 출간하였다. 전체 자료 중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다룬 부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북한 내부 녹취파일 및 동영상 자료 해제

연번	자료의 종류	작성자 혹은 제작자	문헌 제목 혹은 주요 내용 문헌
1	북한언론보도	북한언론사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북한미디어의 보도
2	인터뷰 전화 녹취 기술 문건	아시아프레스와 북한 당 간부	당 간부와의 인터뷰
3	전화통화 자료	아시아프레스와 북한 내 취재협력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부와의 전화통화 육성음성 자료(CD) 100여 건

영상 촬영 및 전화녹취 자료의 주요내용은 김정은 정권 체제 하에서의 북한 내 언론보도, 당 간부와의 인터뷰,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전화녹취 100여 건과 정치학습 동영상으로 구성된다. 해당 문건 및 주요 영상의 작성일 및 문건의 종류, 주요내용 등은 아래 <표 2>로 요약된다.

〈표 1〉의 연번 1번 문건은 북한언론에 보도된 김정은 정권 하 관련 보도내용이다. 주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1〉의 연번 2번 문건은 2010년 여름 경 《아시아프레스》의 소속인이 현재 북한 내 당간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기술한 문건이다. 이는 공무로 중국 출장 중인 노동당 중견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 변화를 탐색한 내용이다.

〈표 1〉 내 연번 3번 문건은 김정은 정권 교체 이후 북한 내부 사회의 반응 및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아시아프레스》가 진행한 내부협력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음성파일이다. 총 100여 건 중 주요 29건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주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응 및 평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의 판단과 함께 사회 감사·감독 및 검열의 강화 등 북한 내부의 변화된 상황 전언과 정권교체 이후 시기의 생활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녹취파일의 간략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CD 및 문건 내 인용한 전화녹취 파일 분류

연번	작성일	내부자 특징	주요내용
3-①	2012. 12. 12.	도시주민	김정은에 대한 주민평가 질의
3-②	2012. 12. 12.	도시주민	김정은 시대 변화사항 질의
3-③	2012. 12. 12.	도시주민	김정은 시대 시장 상황 및 밀수 거래 사항 질의
3-④	2013. 2. 12.	도시주민	김정은에 대한 주민평가 질의
3-⑤	2013. 2. 12.	도시주민	최근 주민 생활환경, 형편 변화 질의
3-⑥	2013. 2. 20.	도시주민	핵실험에 대한 주민 평가
3-⑦	2013. 3. 13.	도시주민, 간부	최근 급박한 정세에 대한 내부 반응 질의
3-⑧	2013. 6. 7.	도시주민	최근 주민 생활환경, 형편 변화 질의
3-⑨	2013. 6. 13.	도시주민	김정은 시대 배급제 변화사항 질의
3-⑩	2013. 9. 13.	도시주민	불순출판 선전물과 밀수밀매행위 단속사항 질의
3-⑪	2013. 10. 14.	도시주민	김정은에 대한 주민평가 질의
3-⑫	2013. 10. 28.	협동농장 농장원	배급사정에 관한 질의
3-⑬	2013. 10. 28.	도시주민	최근 주민 생활환경, 형편 변화 질의
3-⑭	2013. 10. 30.	도시주민	정권교체 이후 식량, 전기사정, 식수 등 생활형편 변화 질의
3-⑮	2013. 11. 11.	도시주민	검열 및 국경봉쇄 상황 질의

3-⑯	2013. 11. 29.	도시주민	성 록화물 관련 처벌 관련 사항 질의
3-⑰	2013. 12. 5.	도시주민	김정은 시대 생활환경, 형편 변화 질의
3-⑱	2013. 12. 5.	도시주민	보안원 회의에서 35명 총살 목격담 증언
3-⑲	2013. 12. 10.	도시주민/간부	장성택 처형, 김경희 신변에 관한 질의
3-⑳	2013. 12. 11.	협동농장원	장성택 관련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질의
3-㉑	2013. 12. 15.	도시주민	장성택 관련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질의
3-㉒	2013. 12. 18.	도시주민	김정일 사망 2주기 즈음 주민들의 반응 질의
3-㉓	2013. 12. 21.	도시주민	장성택 조치 관련하여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및 반응 질의
3-㉔	2013. 12. 29.	협동농장원	김정은 정권 2년차 주민 생활변화에 관한 질의
3-㉕	2013. 12. 29.	도시주민	김정일 애도행사 관련 사항 질의
3-㉖	2014. 1. 14.	도시주민	검열 강화 관련 질의
3-㉗	2014. 1. 21.	도시주민	장성택 사건 관련 소개민(疏開民)사항 질의
3-㉘	2014. 1. 24.	도시주민/간부	삭제명단(처형자) 관련 사항 질의
3-㉙	2014. 3. 18.	도시주민	전기 등 생활물자 관련 사항 질의

《아시아프레스》의 전화녹취는 2012년~2014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자료이며, 지방의 소도시주민, 농촌의 협동농장원,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아시아프레스》는 김정은 정권교체 후 지속적으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생활환경 변화, 검열과 처벌, 이와 관련한 정보 전달의 기간 등 제반 사항 등을 문답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 관련 연구가 폐쇄적 사회의 체제 특수성 탓에 대단히 한정적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어 온 반면, 본고에서 진행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북한사회의 단면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은 연구방법론마저 다양하지 못한 영역으로 축소시켜왔다.

Ⅲ. 김정은 정권기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

1. 김정은 및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 평가

후계구도 작업을 30년 가까이 진행하였던 김정일 정권과 달리, 김정은은 정권 전면에서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어떠한 구도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베일에 싸여져 있었다. 연번 2 자료 내 당 간부와의 인터뷰 문건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인터뷰는 2010년 여름 진행된 것으로 이는 당 해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기 직전 진행된 자료이다. 현재에 이르러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간부는 '김정은의 위대성 선전을 주민들에게 강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이와 같은 민감한 시점에서 당 간부가 김정은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측한 입장이 흥미롭다.

간부: 역대로 놓고 보면 당 규약에 후계자라는 직책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아직 군대 쪽에서는 왕별 4개를 달았으니까 대장이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아무런 직분도 가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무슨 직분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략...

기자: 지금까지는 조선의 중앙 내부에서만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간부: 외부에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만 활동하고, 외부에는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추대된 뒤에도 내부에서만 움직이다가 1980년에야 얼굴을,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내세우진 못하고 일단 당직 지위를 주고 내적으로 집중시키겠지요. 군대사업, 군사는 좀 배웠다니까.

간부: 이제는 당사업을 좀 더 배우고 그 뒤에서...

기자: 장성택이라는 겁니까?

간부: 장성택을 축으로하여 밀어줄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26, 27살 짜리라고 하면 우습게 보겠는데요. 아직 어린니까.

기자: 당신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아직 어린 인물이 통치한다는 건 인정하기 힘들걸요.

당 간부는 김정은이 정권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단기적으로 없을 것이라

전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예측은 빗나갔다. 인터뷰가 진행된 직후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김정은이 대장 군사 칭호를 받고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의에도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첫 모습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김정은에 대한 선전사업을 수행하는 당 간부의 발언은 북한 사회 엘리트 계층의 의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간부는 26~27살 나이의 후계자를 알아보는 태도를 나타내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다시 드러난다.

간부: 그래서 현재 내부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선전사업에 얼마나 동원되고 있는지 압니까. 전혀...

기자: 김정은 대장에 대해?

간부: '천하에 그런 전지전능한 분은 안 계셨다는 것'과 '5살 때부터 그가 뭘 했다'는 과장된...중략...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중략...

간부: 정말 뛰어난 영재고 컴퓨터도 능란하고, 5살 때 외국인과 요트 경쟁을 해서 이겼다고, 모든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의 누구냐 사람이 물으면, '나는 그냥 백성의 자식이다.'라고 대답해 아주 겸손했다는 등.

기자: 당신은 내막을 잘 아니까 그게 더 우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략...

간부: 우리처럼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들으면 된다. 거꾸로'라고, 이만큼 뛰어 온 것도 그렇고 이제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속이면 속이는 대로 넘어갑니까? 이제는 속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웬만한 엘리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지위를 유지해야 밥 줄이라도 끊이지 않으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략...

인터뷰에서 당 간부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 관련 '선전 사업' 내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엘리트 계층 중 이를 믿는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 내용에 대해 조소하며 희화한 반응을 꾸밈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엘리트 계층의 의식 구조 변화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위 사회변화, 혁명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연구에서 엘리트 계층의 의식 변화 역할에 대해 강조되어 온 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버나드(Bernhard)에 의하면 시민사회가 공산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¹¹⁾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엘리트의 자각과 동반된 의식 변화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전반적인 자각에 대한 피면접자의 증언은 북한사회 변화의 단초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간부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정권 인식 또한 주요하다. 다음의 연번 3-④, 3-⑦ 및 3-⑩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반응을 엿볼 수 있다.

연번 3-④ 2012년 12월 12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김정은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군님'이라고 다 하긴 하는가?

A: 장군님이라 안 하면 글썄.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아니하면 죽이겠는데 어찌오. 그래도 어쨌든 다 그러고 눈 감고 이용하면서 그러고 따라가지비. 20살짜리 무슨 걸 안다고..

Q: 김정일 때보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없고, 잘 못하는 것도 없는가?

A: 잘 한다는 게, 인민들을 더 못살게 하는 건 잘 하는거지.

연번 3-⑦ 2013년 2월 12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김정은이 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보기 어땠소? 잘하는 것 같소? 못 하는 것 같소?

A: 아들(아이)이 무슨... 나이 어린 게 무슨 그게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비. 우리는 우리대로 목숨을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거지. 잘 하든 못 하든 무슨 상관이 있소.

연번 3-④, 3-⑦의 전화응답에서 북한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평가

11) Michael Bernhard, "Civil Society After the First Transi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29, No.3(1996), p. 308.

가 ‘어리다’, ‘아직 어려 아는 게 없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나, 직장 등 단체에서는 ‘장군님’의 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 관계에서는 ‘그 사람’, ‘새 사람’으로 통칭하고 있는 모습이다.¹²⁾ 이는 앞선 연번 2의 인터뷰 내 엘리트 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계층에서도 김정은을 더 이상 신적인 존재 혹은 존경의 대상으로 우상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도 냉소적이다. 응답 중 ‘인민들을 못 살게 하는 건 잘 한다.’라던가 ‘잘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평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⑩ 녹취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다.

연번 3-⑩④ 2013년 10월 14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우리 쪽에 들어오는 거 보면 “30살짜리가 뭘 알아서 충성해야 되나” 이런 말이 들어오건든. 그런데 너희 쪽에서 그런 말 잘 못해서 잡혀가거나 처벌받았거나 이런 거 없어?

A: 그런 소리는 없어요. 하여간 이번에 록화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무자비하게 저렇게 사람을 그렇게 한다.’ 이 소리가 돌고 있어요.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장군님하고 수령님은 많이 인민들이 사는 생활을... 그 사람의 범죄가 중해도 우리나라에는 용서라는 게 있고 그랬잖아요.

Q: 그렇지요.

A: 그런데 이번에 록화물 그것 때문에 웬만한 거 갖고 다 보안서 넣고 이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무자비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돌고 있어요.

Q: 그거에 대해 무섭다, 이런 것도 없고?

A: 그거야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여기서 메모리 가지고 겁나서 막 죽어요. 옷 공장 초급단체 비서도 청진에서 미국영화와 한국영화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중도초소에서 걸려서 도보안소에 갇혔는데 지금.

12) 김정은에 대한 호칭을 낮춰 부르는 사례는 북한주민들과의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원, 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p. 55.

전화녹취에 응한 주민은 김정은 정권 하 사회 전반에 대한 단속과 검열이 강화된 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 반응을 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나타나 정치를 잘 하든 못 하든 별 상관이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북한생활 변화에 대한 여러 건의 전화녹취 자료에서도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데 집중하고, 정치의 변화, 핵개발, 국제관계에서의 북한의 지위 등에는 관심이 없음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다. 외부 미디어 녹화물 보관과 관련한 단속 및 검열이 강화되어 적발 시 보안서로 무자비하게 넘겨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김정은이 어리니까 경우에 따른 구분 없이 무자비하게 처벌한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해당 전화 인터뷰에서 특이한 점은 사적 대화 내에서 이전 김정일과 김일성을 ‘장군님’과 ‘수령님’이라 칭하나, 김정은은 ‘30살 짜리 애’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우상화와 관련한 선전사업, 정치학습 등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사회 전반적 구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3대에 이르는 정권 세습이 사실상 무리한 시도로 북한 주민은 정권을 외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2. 김정은 정권 하 생활형편에 대한 북한 주민 평가

분석대상 자료 내 전화녹취 파일에서는 여러 건에서 최근의 북한 내 사회생활 및 형편의 변화에 관한 질의가 주어졌다. 전체적으로 삶이 곤궁해졌는지 에서부터 전기, 물, 식량 등의 사정은 어떠한 지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내부협력자가 대답하고 있다. 다음의 3-② 및 3-③ 녹취자료에서는 김정은 통치체제와 이전시기를 비교하여 질문하고 있다.

연번 3-② 2012년 12월 12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김정은에 대해선데, 계속 단속이 심해지고 먹고 사는게 편해지지 않는 데, 어떻게 생각하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그냥 야도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 하니? 사람들이.

A: 처음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이는게 그닥 아직 까진 뭐. 크게 하느라고는 하는데, 아직 인민들한테 전해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연번 3-③ 2012년 12월 12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주민들이 생활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아주머니네는 형편이 좋아졌소, 아니면 나빠졌소?

A: 잘사는 것들은 더 잘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기 더 바빠졌지. 살기야 하루하루 점점 더 바빠지지.

Q: 어째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A: 장사도 잘 못하게 하고, 무스기나 더 못하게 딱 막아 놓고서 사람 아무데도 못가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무스기나 유통이 돼야 장사도 잘 되고 하겠는데.

Q: 장사 잘 안돼서?

A: 그렇지비. 그전에는 밀수라도 조금씩 해먹고 살던게, 이제는 하루 하루 너무 검열, 검열 하다보니까 밀수도 못 해먹고, 사는 게 점점 더 바쁘지비.

...중략...

Q: 숙청된 게 어떻게 텔레비로 나오니, 안 나오지. 불이랑 안 온다는데, 불은 하루에 몇 시간 오는데?

A: 그저 어떤 때는 한두 시간씩, 세 시간씩 오다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 올 때도 있고. 불이 와도 변압기로 서로 끌어 가려고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불이라는게 하루 1시간 오면 잘 오는거지.

우선 3-②에서는 김정일이 집권할 당시 주민들은 구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등장한 젊은 지도자에 의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기도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녹취 시점, 즉 2012년 12월 당시까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그다지 변화하여 나아진 바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3-③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장사나 유통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이 강화되어 생활이 더욱 곤궁해짐에 대해 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협력자는 이전 시기 조금씩 해 오던 밀수는 커녕 유통이나 사람의 이동까지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통화 내용 중 리영호의 숙청 보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내부협력자는 전기 공급의 부족으로

TV 시청 또한 제한적이라 답하고 있다.

다음 연번 3-⑤ 및 3-⑧의 녹취 내용에는 식량사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간다.

연번 3-⑤ 2013년 2월 12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요즘 생활상황이 좋지 않죠? 하루 몇 끼나 먹소?

A: 어떤 집은 한 끼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좀 잘 사는 집은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요새 살기 영 바쁘오.

Q: 어떤 것을 먹고 있습니까?

A: 못사는 집은 강냉이밥도 먹고, 죽도 먹고 그리고 어떤 집은 대두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쌀밥도 좀 먹고, 그저 그렇지비 사는 게..

연번 3-⑧ 2013년 6월 7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요즘 사는 건 어떻게?

A: 사는게 힘들지비. 원래 보릿고개 전에는 힘들지요.

Q: 진짜 보릿고개 들어서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이요?

A: 예. 농촌에서는 감자 껍데기도 없어서 굶어 죽는 집들이 있소.

Q: 시내에서는 굶어죽지 않소?

A: 앞지대 쪽에는 시내에서도 굶어죽는 집이 있다는 거 같소. 그쪽이 아무래도 힘들지비.

Q: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 사는게 어떻게?

A: 별로 달라진 건 없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더 힘드오.

Q: 구체적으로 사는게 더 나빠졌다는기요?

A: 아무래도 시장도 잘 아니 되는데다 정세도 계속 긴장하니까 사는 게 힘들매.

Q: 그래도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조금 좋아진 기 아니오?

A: 아니오. 잘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힘들어함매.

Q: 혹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소?

A: 자살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소. 화폐교환하고서 그 때 많이 자살했지비.

Q: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소? 이번에 그 쪽하고 우리 쪽하고 회담하는 거 알지?

A: 예. 보도서 나오대.

Q: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소?

A: 무슨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있소? 회담 한다니까 하는구나 하겠지비.

Q: 그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는 전쟁이고 뭐고 하면서 계속 정세 긴장하지 않았소?

A: 예.

Q: 그런데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때까지 힘들게 하다가, 또 회담 한다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 하는 소리지.

A: 나라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관심 없이 상관 아니하지비. 먹고 사는 게 바쁘는데 무슨. 자기네끼리 그러든 말든 상관 아니합때.

Q: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 없고?

A: 나라에서 하는 일에 의견 있으면 됬매? 속으로야 다 의견 많겠지비. 그래도 숨기지비.

연번 3-⑤ 녹취에서는 일반 서민들은 한 끼를 먹으며, 강냉이 즉 옥수수밥 혹은 대두(콩 짜고 남은 찌꺼기)만 먹는 집도 있다고 식량 사정을 전한다. 연번 3-⑧ 녹취자로는 식량구매, 지역별 생활 편차, 자살률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생 활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다. 농업기술이 여전히 발달하지 못 해 보릿고개가 남아있으며, 당시가 춘궁기인 탓에 감자껍질도 못 먹고 사는 집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다. 1절에서 김정은 집권기에 대한 평가가 ‘더 힘들어졌다.’, ‘살기 바쁘다(힘들다)’라 전해진 바와 같이, 이번 녹취에서도 내부협력자는 ‘새 사람’ 이후 더 힘들어진 생활형편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앞선 녹취에서와 같이 3-⑧ 자료에서도 정권의 전쟁 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긴장 등에 북한 주민들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 주목된다. 응답자는 삶이 곤궁한 까닭에 속으로야 불만이 가득하나 정부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이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 답하고 있다.

연번 3-㉠ 자료 및 3-㉡ 자료에서는 2013년 시기의 배급 상황에 관하여 탐문하고 있다.

연번 3-㉠ 2013년 6월 13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그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쪽이 살기 더 좋아졌다는게 맞소?

A: 누가 그럼매? 여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소.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소.

Q: 그래도 배급도 드분히 주고 핸드폰도 쓰게 하는데, 조금 달라진 게 아니오?

A: 배급이란 게 육개월 동안 전쟁미라면서 3일분인가 준 다음에 이번
에 며칠분 준 게 다요. 그리고 손전화를 쓰는 것도 돈이 있어야
쓰지. 시장이랑 계속 단속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서 돈이 나
서 손전화를 쓰겠소?

Q: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소?

A: 다 같지비. 쌀을 한키로를 사먹자고 해도 인민페로 사야 되는 판
인데, 누가 아니 힘들겠소.

Q: 그럼 사람들이 의견이 많겠네?

A: 말은 안 해도, 속으로야 별 생각을 다 하겠지비.

연번 3-㉡ 2013년 10월 28일 협동농장 농장원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그래도 요즘, 배급이랑 줘서 조금 나아졌잖습니까?

A: 배급 그까짓 거 줘다 말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더 애마르게 놔매.
오히려 안 주는 게 낫지. 없으면 없겠거니 하겠는데, 이거는 줘다
안 줘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살던 사람들은 한지에 나왔는단 말
이오. 그래도 그거라도 안 주면 더 힘들단 말이오.

Q: 그나저나 이번에 분배를 농장에서 분배를 주는 거 약속대로 안 주고 원래나 똑같이 줘다면서요?

A: 원래와 똑같이 준데다가, 내라는 건 또 어째 이렇게나 많소. 그러

고 나니 탈 것도 없소.

Q: 제하고, 제하고 또 이러겠구나.

A: 그렇지 않고. 이제 봄날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또 농장원들이 일 하러 못 나가면 그 농사 잘 되겠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데. 이 가매 안에 들어갈 게 없는데, 이 농장에 나가 일해야 본배에서 다 자르고 나면 뭐 타 들어가고 다음해에는 뭘 먹고 일하겠소? 그저 맨날 더하면 더했지. 이게 뭐이 바뀌기 전에는 뭐 될 것 같지않요. 뭐든지 그저 다 힘드오. 그저 조직 생활에 딱 매여 놔서 여기 사람들은 사상만 먹고 삼매. 사상만.

연번 3-⑨ 자료 및 3-⑩ 자료의 내용에서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 시스템은 체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붕괴된 것은 주민들을 통제할 그 어떤 강경책으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내부협조자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방도시 배급이 지난 6개월 만에 3일치가 배분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쌀을 사고자 해도 중국 화폐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특별히 국경 간 거래를 하거나, 외부 협조를 구하지 않는 이상 북한 사회 내 생활로 달리 쌀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사회 내에서 손전화(휴대폰)은 단속의 대상은 아니지만, 응답자는 돈이 없어 굶는데 어떻게 전화를 사용하겠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3-⑩은 농촌지역 협동농장원이 내부협력자로 응답하였다. 그는 배급을 불규칙하게 가끔 주는 통에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평하고 있다. 그의 응답에서 ‘배급은 주지 않고 사상만 먹고 산다.’는 자조가 배급시스템의 붕괴가 사회주의 국가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해당 녹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한 사항은 3-⑬ 녹취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연번 3-⑬ 2013년 10월 28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그 사람이 이제는 한지가 2년 됐잖습니까?

A: 야. 그렇게 됐소. 이제는.

Q: 그동안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못한 것 같습니까?

A: 옛날보다 더하오. 더 못 해졌소.

Q: 더 못해졌습니까?

A: 사람들 사는 게, 그 사람 제 배가 부르는데, 우리 배고픈 거 알겠소? 알 것 같지도 않소.

Q: 요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A: 그렇지 않고, 우리 알다시피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쑥덕쑥덕 지네끼리. 어떤 땐 이럽매. 친한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이 더 많소. 살기 기차게 힘드오.

Q: 옛날에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잖습니까?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켜었니까.

A: 많이 켜소. 사람들이 많이 켜소.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굴릴 줄 안단 말이오. 그런데 생활은 점점 더 힘드오. 내 생각에는 생활이 더 펼 것 같지는 않소.

연번 3-⑬ 녹취 내 내부협력자도 이전 응답자들과 같이 김정은 정권 하 생활이 이전보다 못 해졌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지인들끼리는 체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언급하거나 북한 정권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살아갈 궁리를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규율사회에서 이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내부협력자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체제모순을 인지하여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번 3-⑭에서는 북한 내 물부족 및 전기부족 사정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나타나 있다.

연번 3-⑭ 2013년 10월 30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정권 바뀐 다음에 2년 간, 꼬제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A: 조금 늘었소. 사는 게 원래보다 못해졌단 말이오. 농사가 잘 안 되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소. 북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적고,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많고 그렇소.

Q: 요즘에 전기는 잘 옵니까?

A: 잘 안옴때. 이제는 가을걷이 때니까, 농촌에다 다 돌려 줬단 말이.

Q: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옵니까?

A: 한 네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

Q: 물은요?

A: 우리집이 있는 쪽에는 미더리 안 옴때. 물도 시내는 좀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 썩은 나오지.

Q: 물은 하루에 한 번 썩 꼭 나오니까?

A: 야. 그런데 우리 있는데 꼭대기는 열흘에 한 번 썩도 나오고, 그러니까 매집이 다 물을 사 먹지.

Q: 하하하 물을 사 먹습니까?

A: 야. 하하하

Q: 50리터짜리 빨리찌 통이 하나에 얼마합니까?

A: 여름에는 좀 녹단 말이. 여기는 우리 있는데는. 그 물을 길는 데로 부터 조금 가까우니까. 그 50리터 짜리 빨리찌 통 2개면 한 구루마에다 심는단 말이. 그럼 그게 6천원, 한 구루마에. 하하하 웃겠지? 그리고 시내 가면 10원(중국돈)

Q: 물장사도 돈을 좀 벌겠구나.

A: 야. 물장사 돈을 번다재오.

연번 3-⑭ 녹취 자료에서는 김정은 체제 이후 꽃제비의 수가 앞쪽 지역 즉 남쪽 지방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북한 내 남북 간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협력자는 지방도시 전기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토로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가 부족한데다 가을걷이 때라 많은 용량의 전기를 농촌 지역으로 끌어가 상대적으로 지방도시 사정이 악화된 것이다. 물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도시 내 시내 쪽에는 하루 중 한 차례 정도 물이 나오지만, 응답자가 있는 곳은 정형상 시내를 벗어난 아파트의 높은 층이라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50리터 플라스틱 통 2개 분량에 북한돈 6천원(당시 환율 1달러 당 북한돈 8,000원)에 살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연번 3-㉔ 2014년 3월 18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봄이 오고 추위도 풀리는데 전기는 잘 옵니까?

A: 형편없습니다.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없습니다.

Q: 전기 하루에 한 번도 안 옵니까?

A: 한 10분 왔다갈 때도 있고, 30분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열차 같은 경우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일 돼야 들어옵니다.

Q: 열흘 걸린다고요?

A: 그것도 빠른 편이지요.

Q: 음.

A: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기가 부족한 게 그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연번 3-㉔ 자료 내에서 전기부족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의 마비 또한 엿볼 수 있다. 자료 내 내부협력자의 거주지에서 평양까지는 일반적인 상황 하 북한의 기차가 통용되면 2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한다. 전기가 간헐적으로 공급되면서 열차통행 시간이 10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정권은 내부의 전기부족 사항이 그쪽, 즉 한국과 일본 때문이라 탓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교체 이후 주민들의 삶이 더욱 곤궁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사회구성원들 간 위기의식, 변화의 필요성 인지하는 상황들이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시, 감독 체제가 촘촘히 짜여 있는 북한 체제에서조차 파악하고 있는 까닭에 김정은 체제는 사회 단속 및 검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다음 3절에서 전화 녹취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IV. 김정은 체제 하 공포정치 상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1. 장성택 숙청 관련 보도 및 주민반응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에서의 배급 시스템 붕괴, 경제체제 및 대외관계의 악화 등으로 북한 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은 변화를 요구

하며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치나 외교 상황 등에 둔감한 채 냉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 전반적인 단속, 감시, 검열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룬 전화 녹취 자료 내 단속 및 검열 상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 움직임과 둘째, 외부 미디어 유통에 관한 단속 및 검열 상황의 강화, 셋째, 핵무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단속하려는 북한 체제의 의도로 나뉜다. 김정은 정권 교체 후 북한 사회 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장성택의 숙청이라 할 수 있다. 연번 3-⑩~⑬ 자료는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연번 3-⑩ 2013년 12월 10일 도시주민/간부와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장성택이 총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연행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A: 연행된 것만 아니고 총살당했습니다.

...중략...

A: 김경희는 총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군부대 군관에게 들었는데, 5명이 총살됐습니다. 사진은 삭제하기 위해 모두 회수하고 있습니다.

연번 3-⑪ 2013년 12월 11일 협동농장원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이번에 텔레비전으로 장성택이 체포되는 것을 봤니?

A: 예. 5시와 8시 보도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Q: 그쪽에서는 왜 잡아갔다고 하니?

A: 여성과 관련되고 또 각성제건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중략...

A: 김정은 동지가 나이가 어려서 저렇게 대답하게 일처리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모부입니다.

연번 3-⑫ 2013년 12월 15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이번에 장성택이 숙청과 관련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렇게 꼭대기 있던 사람도 저렇게 되니

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잘 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열려서라도 우리가 잘살면 되지, 자본주의 해서라도 잘살았으면 하고 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Q: 사람들이 이번에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하니깐 겁에 질려 있겠네요?

A: 그렇지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자수 정책'이란 게 나왔습니다. 장성택 건과 관련된 것은 모두 자수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 친다는 겁니다. 월말까지 조선공민이라면 다 자수하라 해서 '자백서'를 다 받아갔습니다.

2013년 12월 3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장성택의 실각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실각설과 신증론이 공방인 가운데 12월 7일 장성택의 모습이 삭제된 북한기록영화가 방영되어 장성택 실각이 확실시 되었다.¹³⁾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출당 및 제명시킨 것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한다고 보도했다. 연번 3-⑩, ⑪, ⑫에서 이를 접한 지방도시 간부, 농촌의 협동농장원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이들은 장성택이 총살되고 김경희는 살아남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어진 연번 3-⑬, ⑭ 자료 내 내부협력자들은 장성택과 일당의 숙청으로 사회분위기가 공포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연번 3-⑮ 2013년 12월 21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이번 행정부장 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A: 바보같은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지요. 그 측근들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략...

13) 연합뉴스 “北 기록영회사 장성택 모습 삭제·실각 사실인 듯”,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07/0511000000AKR20131207047951014.HTML>

A: 다 풀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다 경계하고 있는데 특히 가계에 대해, 장성택과 김경희에 대해 말하는 걸 요즘 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경희 동지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모두 대단합니다.

...중략...

Q: 인민반회의라든가 그런데서 장성택 일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까?

A: 많이 하지요. 인민반회의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보위부에서 나와 강연을 했습니다. 장성택이 우리를 다 팔아먹었다는 걸로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장성택 때문에 어렵게 됐다던가.

연번 3-㉔ 2013년 12월 21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장성택 총살과 관련해 사람들 속에 어떤 말들이 돌고 있니?

A: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요. 나이가 너무나 어린 분이 수령을 하나까 자기가 수령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혁명화로 내려갔던 사람들도 장성택이 자신의 옆에 두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 정도입니다.

Q: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과 연결된 54국 공장 기관장도 중앙에 불러 갔습니다.

A: 54국은 머이요?

Q: 장성택이 운영하던 조직단위입니다.

A: 외화벌이 말입니까?

Q: 예. 그렇지요. 우리 근처에도 있습니다.

앞선 3-㉓ 자료에서 내부협력자는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서 겁도 없이 고모부를 처리하는 등 대담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 사회 내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자료 내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3-㉔ 자료 내에는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공포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국은 주민들이 장성택과 김경희 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히 단속하고 있으며, 장성택 숙청 사유가 갖가지로 떠돌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 김정은 체제 하 사회단속 및 검열 상황

최근 김정은 정권이 이와 같은 ‘불순출판선전물’의 밀수, 밀매, 운반, 유통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검열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음을 녹취를 통해 알 수 있다.

연번 3-㉔ 2013년 9월 13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A: 인민반회의 했어요. 인민보안부 포고가 떨어졌는데, ‘불순출판선전물과 밀수밀매 행위를 철저히 없애자’가 제목이란 말입니다.

Q: 밀수, 밀매?

A: 이거 가지고 인민반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불순출판선전물 밀수 밀매. 10년 전에 포고가 떨어져서 이때까지 즈믄했는데, 지금 인민들이 경각성이 무디고 이렇게 때문에, 다시 인민보안부 포고가 어제 저녁에 다시 발표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Q: 그럼 처벌을, 총살하고, 교화 보내고 이러는 거지?

A: 평양에서 12명 총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명 총살한 게 영화배우들 총살 했다는구나.

Q: 영화배우래?

A: 네. 은하수하고 왕재산 배우들인데, 12명 총살했는데, 3대를 멸족시켰답니다.

연번 3-㉔ 녹취 내용 중 불법미디어 단속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었다. 내 부협력자는 10년 전부터 이미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영화배우 12명이 총살되고, 삼대가 멸족되었다거나, 국가보위부가 연선, 즉 북중 국경선을 막는 등 공포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연번 3-㉕, 3-㉖ 녹취자료에서는 세부적인 검열 조직과 전개 방향, 국경지방 봉쇄와 관련한 복수 증언이 등장한다.

연번 3-㉕ 2013년 11월 11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최근엔 왜 연락이 없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A: 지금 여기 검열이 들어와 형편없습니다.

Q: 어떤 검열인데?

A: 보위사령부 검열이 들어 왔었습니다.

Q: 언제 들어왔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할 때도 아무 소리 듣지 못했는데?

A: 5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Q: 그렇군.

A: 이번 검열이 심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잡을 거 같다니.

Q: 이번 보위사령부 검열이 들어온 목적이 뭐인가?

A: 지금 경비대를 제일 엄하게 검열하는 중입니다.

Q: 경비대?

A: 예. 그래서 지금 전 국경이 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중략...

A: 처음에는 경비대를 치고 그 다음에는 인민보안부. 그곳을 집중적으로 검열할 것 같습니다.

연변 3-㉔ 2014년 1월 14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A: 지금 검열이 들어와 있어요.

Q: 어디에서?

A: 국가보위부

...중략...

A: 시작했는데 연선을 막는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되었던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과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 봉쇄”를 재차 확인하며, 김정은 정권 세습을 위한 사상통제에 집중해 왔다. 북한 사회에서 확산·유통되고 있던 미국, 한국 등 자본주의 영상물 및 외부사조를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 내 유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경지역에서의 밀수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연번 3-㉔ 2013년 11월 29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A: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살벌합니다. 이쪽에서 오늘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Q: 누구를?

A: 총살했습니다. 2명을

Q: 오늘? 오늘 또?

A: 예. 저도 거기 갔다왔었습니다.

...중략...

Q: 무슨 죄로 죽었는가?

A: 성 록화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 록화물

Q: 아..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살했기야?

A: 예. 초급 일군들하고 기관장들만 모아 놓고 했습니다.

연번 3-㉔ 전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북한 북부 국경지역으로 통화 당시 계속 되는 총살 처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근자에 2명 총살 이후 통화 당일 2명이 다시 총살된 상황이 전해지고 있으며, 일련의 처벌 원인이 성록화물 등 단속에 의해 진행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 3-㉓, 3-㉔ 녹취자료에서 국경지역 단속이 강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하겠다.

이처럼 외부 불법영상의 유통 및 보관 관련 단속 및 검열은 북한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대외 관계나 핵실험 등 일반적으로 상위정치 분야의 변화에는 오히려 내부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핵실험 등 북한의 핵심 정책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도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다. 북중, 남북, 북미 등 대외 관계 등의 변화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등 먹고 사는데 지쳐 정치, 외교 등에 오히려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번 3-㉕ 2013년 2월 20일 도시주민과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핵실험 관련) 영상 강연을 했다고, 핵실험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이 있니?

A: 대체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바쁜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연번 3-㉔ 2013년 3월 13일 도시주민/간부와의 전화통화 녹취 자료
Q: 그쪽에서 핵폭탄으로 공격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거짓말일 수는 없지 않소?

A: 이쪽에서 큰소리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요. 핵을 쏘면 전쟁인데 전쟁해 봤자 이기기는커녕 모두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건 이쪽이 더 잘 알고 있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¹⁴⁾에서도 핵개발을 언급할 정도로 김정은 정권은 핵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내부협력자의 응답에서 핵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하려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사회 변화여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 자체에 대한 평가로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주민평가와 이 시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김정은 권력승계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나이 어린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과의 인터뷰 자료를 요약해 보면 김정은의 이상화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당 간부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김정은 이상화 관련 ‘선전사업’ 내용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정권의 지지층으로써 충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트 계층에서도 이상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는 없었으며, 심지어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 내용에 대해 조소하며 희화한 반응도 나타났다.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장성택 숙청 관련 보도 및 주민반응과 김정은 체제 하 사회단속 및 검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정은

14)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전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한 것이다.

정권 4년차의 북한의 모습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경제상황이 진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배급제는 거의 붕괴되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문건을 종합해 보면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체제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사상 강화를 위한 교양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사회 단속 및 검열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체제의 지속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의도와 함께 북한 주민의 사회적 변화요구와 일탈 등의 비공식적 부분 역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등의 구호는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를 수용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로 평가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이어린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에 따른 지지도와 충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요인도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체육강국과 문화강국 등의 새로운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충성도는 경제문제에서 비롯되기에 향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충성도를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의 여부가 김정은 정권의 지속과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 박종철·박영호·정영태·최수영·이기동·장용식·차문식.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형중·이교탁·정창현·이기동.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교탁·임순화·조정아·송정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2000.
- 조경근·이용승·이윤식. 『새로운 북한 정치의 이해』.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2. 논문

- 강동완·김현정.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개정 의미와 북한주민들의 인식: 북한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집 1호 (북한연구학회), 2015.
-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조사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통일연구원), 2014.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간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1.
-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통일연구원), 2013.
-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2.
- 최진욱. “북한의 정치·행정 체제: 변화실태와 한계.”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체제의 이해: 제도 와 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명인문화사, 2009.
- Bernhard, Michael. “Civil Society After the First Transi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29, No.3 (1996).

3. 기타

- 리첵. “제3장 10대 원칙이란 무엇인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획립의 10대 원칙.” 『북한내부영상문서자료집: 김정은의 새 ‘10대 원칙’ 책장·보급과 장성택 숙청』. 오사카: ASIAPRESS 出版社, 2014.

이시마루 지로. 『북조선내부영상문서자료집: 김정은의 새 ‘10대 원칙’ 책장·보급과 장성택 숙청 (北朝鮮内部映像・文書資料集: 金正恩の新「十大原則」策定・普及と張成沢粛清)』. 오사카: ASIAPRESS 出版社, 2014.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12년 4월 15일.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1일.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石丸次郎, CD 영상(북한내부영상문서자료집: 김정은의 새 ‘10대 원칙’ 책장·보급과 장성택 숙청) (오사카: ASIAPRESS 出版社, 2014).

연합뉴스, “CNN ‘북한 김정은, 고모 김경희 독살시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2/0200000000AKR20150512025600009.HTML>

연합뉴스,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은...전문가 진단: 국정원 ‘北 장성택 실각한 듯’”,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03/0511000000AKR20131203189900014.HTML>

연합뉴스, “北 기록영화서 장성택 모습 삭제...실각 사실인 듯”,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07/0511000000AKR20131207047951014.HTML>

조선일보, “현영철, 首領 영도 거부해 처형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177.html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cmsid=1440

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of Kim Jong-un's Regim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n Literature Survey

Kang, Dong-Wan(Dong-A University)·Kim, Hyun-Jung(Dong-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North Korean's evaluation of Kim Jong-un's regim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via the internal documents obtained by the particular media. These internal documents are recording data through a direct telephone connection with the North Koreans. As these data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current North Korean people, we determined the public opinion inside the country through this study.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lso placed 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o accept the residents' request, approval the north korea people' ratings and loyalty would have to be a meaningful indicator to assess the North Korean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orth Korean's evaluation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raw materials to obtain the transcripts of telephone calls over the North Korean people.

Key words : Kim Jong-un's Regime, North Koreans, Reign of Terror, Political Changes.

: 2016 6 28	•	: 2016 7 20	•	: 2016 8 25
-------------	---	-------------	---	-------------